

작품 내용

제 목	동물들이 말하는 저작권
내 용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어느 울창한 숲속이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숲에서 가장 욕심 많은 여우가 저지른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 숲에서는 대대로 이어져 온 아주 큰 그림 대회가 열렸습니다. 상을 받고 싶었던 여우는 고민 끝에 숲에서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토끼의 풍경화를 똑같이 베껴 그려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이었던 예술가 늙은 거북이가 토끼와 여우의 그림이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소문은 온 숲에 짹 퍼졌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숲의 이장인 곰이 동물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오늘 숲의 논제는 여우에게 죄가 있는가입니다.” 곰 이장은 먼저 여우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동물들을 조사했습니다. 모인 동물의 3분의 1 정도가 발을 들였습니다. 곰 이장은 그중 강호랑과 이참새를 반대팀 대표로 단상에 올렸습니다. 이어서 여우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3분의 2의 동물들 중에서는 예술가 김거북 영감과 박다람을 찬성팀 대표로 불렀습니다. 양측은 30분 동안 열띤 토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준비 시간이 지나고 먼저 찬성팀의 박다람이 당당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논란이 된 여우의 표절 사건에 대해, 저희는 여우에게 분명히 죄가 있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숲에는 다른 동물의 작품을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하고 있지만, 이 일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어 박다람은 김거북 영감을 대신해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이 대회는 단순한 작은 모임이 아니라 먼 숲에서도 찾아오는 대대로 내려온 큰 대회입니다. 이런 큰 대회에서 남의 그림을 베낀 것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둘째, 여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과거에도 다른 대회에서 표절을 저질렀고, 이번이 무려 열 번째입니다. 셋째, 곰 이장님의 미니 투표에서 보셨듯 숲속 동물의 3분의 2 이상이 여우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박다람의 정돈된 발표에 동물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곧이어 반대팀의 강호랑이 목을 가다듬고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찬성팀의 의견도 훌륭하지만, 숲의 법률상 표절을 처벌할 조항이 없으므로 여우에게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뒤이어 이참새가 고운 목소리로 근거를 덧붙였습니다. “첫째, 위대하신 초대 곰 이장님이 만든 법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은,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처벌하지 말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여우가 표절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어쩌면 토끼가 여우의 그림을 먼저 베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반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호랑과 이참새가 먼저 찬성팀의 근거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대회가 크든 작든 법적인 기준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을 끌어와 벌을 주는 것은 죄형법주의에 어긋납니다. 열 번을 했더라도 법이 없었다면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여론에 휘둘리기보다 객관적인 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팀의 치밀한 반론에 객석에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찬성팀의 박다람과 김거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박다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초대 곰 이장님이 법을 만들지 않은 것은 동물들이 서로 피해를 주지 않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법률 조항은 없을지라도 여우는 공동체에 피해를 주었고 대회의 공정성을 망쳤습니다.”

그때, 늘 느릿느릿 말하던 김거북 영감이 갑자기 또박또박하고 빠른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토끼의 그림에는 3년 전에 그렸다는 날짜가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반면 이번 대회는 1년 이내의 그림만 출품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토끼가 여우를 베꼈다 해도 여우는 참가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우의 그림을 분석한 결과, 물감이 칠해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토끼가 표절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추측일 뿐입니다!”

김거북 영감의 사이다 같은 반박에 찬성팀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터졌습니다.

양쪽의 논쟁을 조용히 듣고 있던 곰 이장이 마침내 단상 앞으로 나섰습니다. 귀가 푹 꺾인 채 눈물을 참고 있는 토끼와 뺨뺨하게 서 있는 여우를 번갈아 바라본 곰 이장이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숲의 법률에 남의 작품을 따라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이 없다고 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한 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숲의 이장 권한으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여우의 출품작을 몰수하고, 앞으로 숲속 도서관과 학교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펄쩍 뛰며 항의했습니다.

“이장님이 법에도 없는 벌을 마음대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곰 이장이 단호하게 여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우님, 벌을 받지 않을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토끼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숲속 어린 동물들에게 100시간 동안 정직하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겠다고 약속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겠습니다.”

여우는 씩씩거리며 숲속 동물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대다수 동물의 눈빛을 보자 결국 꼬리를 푹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우는 느릿하게 토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토끼야, 미안해. 네 그림이 너무 탐나서 그만 못할 짓을 했어. 정말 미안해.”

여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토끼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여우는 다시는 남의 작품을 탐내거나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여우는 토끼에게 진심으로 그림을 배우며 함께 '세계 동물 그림 대항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숲속 모든 동물도 서로의 노력과 저작권을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